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일본군 병사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표상

-후루야마 고마오, 다무라 야스지로, 후지 마사하루의 경우

가나이 케이코

특집 현대문학에 나타난 제국주의와 여성수난

일본군 병사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표상

-후루야마 고마오, 다무라 야스지로, 후지 마사하루의 경우

가나이 케이코

국문초록

이 글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종군한 경험을 가진 남성 작가들에 의한 소설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전시하 병사들이 민간 여성들을 강간하는 행위와 그것이 시스템으로 정착된 형태인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후루야마 고마오의 『매미의 추억』에 대해서는, 전시하의 황군 병사에게 일종의 환경과 같이 인식되고 있던 일본군위안부가, 동시대를 공유하는 “그녀” 혹은 “그녀들”로 재인식된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이나 대만을 시작으로 해,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용기를 내어 대중 앞에 나선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집이나 저적을 돌아볼 때, 자기의 개인적 체험에만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혹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는, 사소설의 상상력의 한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무라 야스지로의 『메뚜기』는, 전시에 만난 일본군위안부와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전면적인 관계로서 취급하고 그녀를 작가 자신의 삶과 성의 근간에 접하는 존재로 작품화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병사와 위안부와의 연애 이야기라고 하는 골조를 가짐으로써, 말하자면 로망화의 수법을 도입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도록 만들기는 했으나, “위안부”가 “연인”으로 그려짐으로써 식민지 지배하 여성의 수난을 구

조적으로 조명하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후지 마사하루의 『동정』은, 전선에서의 “전시 강간” 시에 중국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바꿔 넣어 상상하는 일본인 병사가 등장한다. “생명을 낳아 기르는 성”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국의 아내들과 “배설하는 성”으로 소비되는 식민지하의 “위안부”나 토벌지에서 우연히 만나는 적국 여성들이, 어느 쪽이나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국주의의 구체적 현현(顯現)인 제국 군대에 의해 행해지는 전시 강간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존재(=자국의 여인들)까지도 부정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구성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불신감이나, 살아가기 위해 몸을 파는 여성들을 국가가 업자들과 함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의미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 제국주의하의 성폭력을 취급한 작품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일본인 여성연구자인 필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주체의 분열을 느끼게 되는 체험이지만, “위안소” 혹은 “위안부”를 낳은 일본의 상상력에 대해 향후도 탐구를 계속해 갈 생각이다.

주요어: 중군위안부, 일본군, 기억, 섹슈얼리티, 창부와 아내

1. 극단으로 내모는 것들- 영화 『일본의 젊은 폭력자들』을 통해

2001년 12월, 일본에서는 도쿄를 시작으로 하여 다큐멘터리 영화 『일본의 젊은 폭력자들』이 상영될 예정이다. 「중일 15년 전쟁·황국군 병사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1931년 만주사변에서 1945년 일본 패망에 이르기까지의 중일전쟁과 세계 정세를 중심으로, 중국대륙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한 일본군 병사 14명의 진술을 모아 당시의 가학행위를 기록한 것이다.

1) 제작·감독 마쓰이 미노루, 제작·촬영 오구리 켄이치, 2000년 제작, 2001년 공개, 160분.

필자는 이하에서 본 심포지엄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제국주의와 여성의 수난”에 맞추어 일본 근대소설 세 편을 분석함으로써 일본군 병사의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할 계획이나, 우선 그에 앞서 『일본의 젊은 폭력자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 전까지는 농부나 의사, 점원, 교사, 회사원 등으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던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삼광(三狂: 무엇이든 죽이고, 빼앗고, 불태운다)”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잔학 행위를 일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당시 병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작품의 증언자들은 종전 후 대 중국(對 中國) 전범으로 구금되었으나, 인도적 처분을 받아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전쟁체험을 진술했지만, “중공에서 돌아온 세뇌자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공안 당국이나 경찰의 감시는 물론 취직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잔학한 행위들이 전쟁시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또 전쟁 후에는 그대로 잊혀지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고령의 몸을 이끌고 자신들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인터뷰 중, 누군가 “물건 하나 빼앗지 못하고, 여자를 보고도 강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병사는 따돌림을 당했지요.”라고 말했다. 다른 병사들도 개인의 윤리관이 집단의 환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허물어져 가며, 또 수탈이나 강간, 살육 등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일상화 되어 가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진술했다. 14명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처참한 기억 - 우선은 빼앗고 상대를 범하고 그리고 살해했을 때의 기억-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곧 그러한 행위가 집단 내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례처럼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수탈과 강간, 살육이 행하여졌으며,

또 그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동료들의 신임을 얻고 집단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다. 일본 특유의 체념적 사고를 상징하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한 사람의 개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집단의 공범자가 되는 사실을 대변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작품은, 세밀하고 긴 인터뷰를 통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의 등을 떠미는 그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것은 곧 평소 개개인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차별 의식이었다.

어느 마을의 토벌 작전에 들어간 병사는 한 농가에서 중국인 입산부를 발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살해했다고 한다. 그 때 그의 뇌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중국놈 주제에 건방지게 애를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라는 당치도 않은 차별의식이었다. 그가 저지른 이제까지의 약탈과 살인에는 이러한 차별 의식이 깔려 있었고, 더욱이 당시의 상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새 생명을 잉태한, 그야말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조차도 민족간의 당치않은 차별 의식에 의해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만다 - 그러한 행위의 주체는 일본군이 아닌, 차별의식을 지닌 개인이라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 과정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양성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정이나 지역, 학교, 직장 등의 구체적인 환경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멸시의 시선과 언어를 습득했음에 틀림이 없다. 영화 『일본의 젊은 폭력자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인간(혹은 남자)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작품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듯 하면서도 공허하지만 한 경계의 말이 아닌, “전시 하의 극한 상황은, 한 개인(남자든 여자든)이 성장 과정을 통해 배운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되돌릴 수 없는 무수한 희생을 통해 얻은 심오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어제의 일을 기억하듯 생생하게 진술하는 노병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전후 50여 년의 세월이 결코 그들의 기억을 풍화시키지는 못했구나 라

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인터뷰에 앞서 마쓰이 미노루 감독은 14 명의 증언자들에게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 그리고 둘째는 “지금의 기분이 아닌, 전쟁에 나가기 전, 그리고 전쟁 당시의 느낌을 말해 줄 것”이었다고 한다. 즉, 일본군 병사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말고, “당시”와 “현재”라고 하는 거리감 또한 두지 말고 태어나면서부터 전쟁 당시까지의 일을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국주의와 여성의 수난”이라는 본 주제 하에, 종군 경험이 있는 남성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전쟁 당시 일본군 병사들이 민간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곧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된 형태인 종군위안부 제도에 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2. “그녀들”을 향한 상상력 - 후루야마 고마오, 『매미의 추억』

영상이나 음성, 혹은 문장이든 간에 기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탱해 주는 것은 망각에 대한 경외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개인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기억 장치가 아닌, 제 삼자가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출력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 후 50년을 바라보며 발표된 소설 『매미의 추억』²⁾은, 후루야마 고마오라는 사소설 작가의 종군 경험 - 스물 한 살부터 스물 일곱 살까지, 미얀마의 네판 마을을 중심으로 한 군 생활 - 과, “원 종군 위안부의 분쟁”의 자극에 의해 소설화된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후루야마 고마오가 이제까지, 『프레오 8의 여명』이나 『이름 없는 권력자의 추억』, 『하얀 눈』과 같은 작품을 통해 묘사한 종군위안부들의 생생한 진술이 “원래 기억력이 좀 약하

2)1993년 『新潮』에 발표된 이후, 1994년 新潮社를 통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다”라고 시인해 왔던 후루야야 고마오를 크게 자극했다고 한다.

작품의 서두 부분에 “원 중군 위안부들은 반세기 전의 일을 어느 정도나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끝 부분에 가서 또 다시 “그녀(작품의 모델이 된 조선인 위안부)는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만일 살아있다면 일제에 대해 또는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외치는 일본의 여러 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한 병사(곧 작가)와 위안부와의 기억의 차이가 본 작품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나”는 지나치리 만치 요령이 없고 체력도 없는 나약한 병사이다. 그 때문에 선배들로부터 굴욕적인 모욕을 여러 차례 당했다. 입대한 순서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군생활에서는 사소한 동작에 이르기까지 제약이 따랐고 아주 작은 실수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군 표를 손에 쥐고 들르는 “위안소”에서 “나”는 문자 그대로 위안을 얻었는가 하면 그와는 달리 오히려 자신을 한 층 더 비열한 존재로 만드는 원치 않는 체험도 하게 된다. 그리고 작가는 그 곳에서의 비열한 체험을 “위안소에서 체험”으로 기술해 나갔다.

“나”는 값도 비싸고 희망자가 많아 소위 잘 팔린다고 하는 위안부보다는 나이가 많거나 몸이 커서 인기가 없는 위안부들을 주로 상대했다. 제목에 보이는 “매미”는 기둥을 잡고 땀 뻘뻘하고 울어 보이라는 벌을 받았을 때의 기억과, 몸이 큰 위안부와 관계를 하고 있는 몰골이 꼭 “매미 같다”라고 표현한 전우의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통해 병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매미의 삶에 빗대어 표현한 작가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김윤식은 「사소설론의 미학 비판-『매미의 추억』에 관하여³⁾」를 통해 이 작품에 나타난 기억의 메커니즘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논했다.

3) 김윤식, 「사소설의 미학 비판-『매미의 추억』에 관하여」, 『한국문학』, 1993년. 11월, 12월. 박화자 日譯, 『사상의 과학』, 1995년 10월.

본인의 생리적인 기억만으로는 정확할지 모르나, 그것이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공동체(민족 국가)와 어떠한 의미 관련하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은 맹목적이었다. 왜냐하면 사소설이란, 일정한 의미 관련에 의해 조직되어지는 구성력이 처음부터 결여돼 있는, 그러한 문장 작법의 하나의 방정식이었기 때문이다.

철저히 만치 경험에 의지하는 “나”는, “어느 조선인 위안부는 하루에 백 명, 아니 이백 명도 상대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할 뿐 아니라, 열 두 살에 붙잡혀 온 소녀가 “같이 붙잡혀 온 열 여덟 살 짜리 소녀가 일본군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리가 찢긴 채 살해당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최우선시해 글을 써왔던 “내”가, 원 종군 위안부들의 “진술”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며 “믿을 수 없다”라는 정도의 감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매미의 추억』이 간행된 그 다음 해인 1994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마리아 로사 L. 헨손 씨의 『어느 일본군 “위안부”의 회상 - 필리핀의 현대사를 살아오며』⁴⁾가 일본에서 출판되었다. 일본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독자들을 위해 본인에 의해 영어로 쓰여진 이 책에는, 부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헨손 씨의 행보가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에 허덕여 온 필리핀 현대사와 맞물려 잘 나타나 있다. 농장의 소작인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오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농장주의 식모였던 어머니가 혼외 임신으로 그녀를 출산하는 경위와 열 네 살 때 일본군 장교에게 당한 강간, 그리고 그 굴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참가한 항일 게릴라 운동, 열 다섯 살에 납치 감금돼 9개월 간 일본군의 성노예로 있었던 일,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는 했지만 정신적 상해를 이기지 못해 종전 후의 결혼

4) 마리아 로사 L 헨손, 후지메 유키 역, 『어느 일본군 “위안부”의 회상 - 필리핀의 현대사를 살아오며』(岩波書店, 1995).

생활마저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역경이 실로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니시노 루미코가 쓴 『중군 위안부?원 병사들의 증언』⁵⁾ 등의 훌륭한 증언집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성적인 학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적인 학대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한 여인에 게만 국한된 재앙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구조적으로 생겨난 여성의 수난이라고 하는 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원 중군 위안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 한 권 분량의 지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헨슨 씨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어쨌든 『매미의 추억』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작가 후루야마 고마오가, “그녀는 어딘가에 살아있을까? 만일 살아있다면 일제에 대해 또는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외치는 일본의 여러 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인 필리핀 원 중군 위안부의 고통을 그대로 전달할 만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점일 것이다. 자신이 상대한 위안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녀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작가는 김윤식의 지적대로 “일정한 의미 관련에 의해 조직되어지는 구상력이 처음부터 결여돼 있다”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매미의 추억』에 있어서, 전 시하의 군병들에게 하나의 환경처럼 보여져 왔던 일본 중군 위안부 및 위안소가 같은 시대를 살아온 “그녀” 혹은 “그녀들”로 재인식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이나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용기를 다해 전면에 나선 원 중군 위안부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5) 니시노 루미코, 『중군 위안부?원 병사들의 증언』(明石書店, 1992).

3. “중군 위안부”, “연인”, 그리고 “아내” - 다무라 야스지로의 『메뚜기』와 후지 마사하루의 『동정』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당시부터 전후에 이르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한 일본문학 작품은 실로 방대한 양에 달한다. 일본군 위안부의 총수는 십만에서 이십만 정도로, 후방의 병참기지뿐 아니라 바이어스 만이나 자바, 혹은 마라이 반도의 급습 상륙 작전에 동행하는 등, 최전선에까지 하나의 군수물자처럼 배송되었던 위안부들은 그야말로 장병들의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의 모습이 적극적으로 묘사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미 살펴본 후루야마 고마오나 이토 케이이치, 아리마 타노요시, 그리고 이 장에서 살펴 볼 다무라 야스지로, 후지 마사하루 등과 같은 몇몇 작가들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작품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다무라 야스지로는 전쟁 전부터 지성과 작가 겸 평론가로 잘 알려져 있던 인물로, 병사로서의 약 7년간의 중국에서의 전쟁 체험을 통해 “육체가 곧 모든 것이며, 육체의 해방이야말로 인간의 해방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패전 후, 폐히로 변해버린 도쿄에서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육체의 문」(『군상』, 1947년 3월)으로 큰 주목을 받은 그는, 계속해서 중군 체험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원인 미모의 인텔리와 황군 병사와의 사랑을 그린 「육체의 악마」(『세계문화』, 1947년 2월), 「우리」(『신조』, 194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와 병사와의 극한 사랑(혹은 그 불가능성)을 작품화한 「춘부전」(은좌출판사, 1977년 5월), 그리고 「메뚜기」(『문예』, 1959년 9월) 등을 발표했다.

「메뚜기」는 일본군 하사가 두 명의 병사와 함께, 부족한 유골함과 위안부 다섯 명을 보급하기 위해 전선의 원대까지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원대로 향하던 중, 잠시 들른 일본군 진영에서는 여지없이 장병들의 소란이 일었고 그 때마다 위안부들은 그들에게 바쳐져 모진 수난을 겪었다. 조선인

위안부 히로코는 그러한 폭력적 성행위로 말미암아 찢겨져나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 하사 하라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와의 의미 있는 사랑을 원하게 되지만, 하라다는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사랑하면서도 그녀를 안지 못한다. 수많은 메뚜기떼의 습격을 받으며 지옥과도 같은 여정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하늘의 은총과도 같이 초여름의 검푸른 하늘이 열리고 들판에 누워있는 하라다의 손을 히로코가 잡는다. 하라다는 그 강한 힘에 “마음 속 깊이 애정을 담아 자신을 표현하는, 민감한,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실로 인간다운 여체”를 느끼게 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 적의 공격을 받아 히로코는 그만 빈사상태에 빠지고 만다. 행군에 방해가 되는 “폐품”은 버리고 간다는 원칙에 따라 히로코는 허허벌판에 버려지고 마는데, 그 뒤부터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메뚜기가 하라다를 따라다니게 된다. 작중 여러 차례 등장하는 메뚜기는 끝없는 행군을 계속해 가는 일본군 병사를 상징할 뿐 아니라, 하라다에게 정면으로 다가가 생과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진 조선인 위안부 히로코의 상징이기도 하다.

남성의 시점에서 일본군 병사의 성적 행동을 분석한 『남성신화』⁶⁾에서, 히코사카 마코토는 『메뚜기』에 묘사된 하라다의 내면 - 성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식 - 은 성행위 자체를 전인간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행위는 쌍방이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히로코와 하라다가 처한 상황을 - “전시 매춘”이 제도화된 “전시 강간”과도 같은 - 생각해 볼 때, 히로코 혹은 하라다가 주체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환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논했다.

필자는 다무라 야스지로가 전시하에 만난 일본군 위안부들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다루며, 그것들을 자신의 삶과 성의 근간에 놓여진 존재로 작품화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그것이 꼭

6) 히코사카 마코토, 『남성신화』(經書房, 1991).

병사와 위안부와의 연애(혹은 그 불가능성)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하라다와 히로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이 설정되는 순간, 황국병사와 그 군대의 지휘하에 있는 성노예라고 하는 사회적인 역할은 각 등장 인물의 하나의 특성이 되고 만다. 두 사람은 마찬가지로 내일을 알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두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또 그러한 배경들은 결코 사랑(혹은 그러한 예감)이라는 미명하에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다무라 야스지로의 이른바 낭만적 수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설로서 받아들여지기 쉬운 모범 안을 제공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식민지 지배하에서의 여성의 수난을 구조적으로 도출해 낸다고 하는 문제로부터는 한층 더 멀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위안부”가 “연인”으로 그려질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역사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점을 작가가 숙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작품, 후지 마사하루의 『동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징주의 시인으로 출발한 후지 마사하루 또한 1944년에서 1946년까지, 2년간 중국 대륙에서 군 생활을 했으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을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동정』은 1952년 1월 『VIKING』을 통해 처음 발표된 이래, 약 8년 후인 1964년 『제국 군대에 있어서의 학습? 서(序)』(미래사)에 재수록되었다.

주인공인 마스하라 고초는 “강간”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현지 마을의 토벌이나 징발 시에도 여자에게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면을 탐탁지 않게 여긴 고참 부하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로 하여금 강간케 하고 또 그 강간을 통해 마스하라 고초를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책략을 부린다. 고참병들이 마스하라 고초로 하여금 “여자를 안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날, 마스하라가 단검을 꺼내 품에 안은 여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증거 인멸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서 주저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마스하라 고초의 태도

에 병사들은 커다란 두려움을 느낀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고참병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인솔하에 있는 “나”에 의해 전개되는데, 마스하라 고초는 “나”에게 “여자”는 과연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만일 고향에 두고 온 부인이, 적군들로 인해 강간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그녀는 과연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필사의 저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마스하라 고초는 결혼한 사람들의 강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자살하려 해도 도대체 뭐가 있어야 말이지. 많은 적병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여자의 사지를 푹푹 뭍고 차례로 그녀를 범한다면…… 그녀는 어떻게 하겠어?」

「허라도 깨물겠죠.」

「실제로 그런 여자가 있을까?」

「……」

「적병들은 거침없이 그녀를 범할 거야. 그러면 그 여자도 끝내는 황홀함을 느끼게 될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지속되는데도?」

마스하라 고초는 순간 눈을 번뜩였고 나는 반항적으로 그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

「한 번 간지럼을 당하면 누가 자극하더라도 간지러움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죠.」

「그 여자는 일본군 병사의 아내야! 그리고 상대는 적군이고, 그래도 말인가?」

「인간은 마음뿐 아니라 몸도 있으니까요.」

「몸과 마음은 대체 그런 거란 말인가?」

「마음으로 몸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몸도 마음을 지배할 수 없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이 있는 후, 일본군 병사의 아내가 날 좀 데려가 달라고 한다면 적군은 흔쾌히 그녀를 데리고 갈까?」

「미인이라면 데리고 가겠죠.」

「만일 자네가 적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나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여기서 마스하라 고초는 전쟁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시 강간”에 대해, 중국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바꿔 생각하며 또 그것을 통해 여성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군에게 몸을 맡기거나 동행하는 행동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한 뒤에 결벽자 마스하라 고초의 제재를 받아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마스하라 고초는 어떠한 경우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길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무서운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일본군 병사의 멸시감을 손쉽게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의 것들을 주의 깊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마스하라 고초의 논리가 전시 강간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 “위안부”와 “처(적국이든 자국이든)” 모두를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마치 뉘베우스의 띠와 같은 연속체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시 강간에 있어 “생명을 잉태하는 고귀한 성”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자국의 아내들과, “배설을 위한 성”으로 소비되고 있는 식민지하의 “위안부”나 토벌지의 적국 여성들은 그 위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제국군대에서 “내”가 학습한 것은, 곧 남자들의 전시 강간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존재(=자국의 여인들)까지도 부정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구성 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불신감이나, 살아가기 위해 몸을 파는 여성들을 국가가 업자들과 함께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멸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 중군 체험이 있는 일본의 남성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세 편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섹슈얼리티가, 제프리 워스의 말처럼 “인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의 결과일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자기 정의의 결과이며 정의하고 규제하는 권력자와 저항자 사이의 결과”에 의한 “교섭과 투쟁과 인간주체의 산물”⁷⁾이라면,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광기 어린 상태”라는 쓸모 없는 초역사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하나 하나 세밀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그때는 분석 주체로서의 “나” - 가나이 케이코라고 하는 역사적 존재를 어떻게 자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영화 「나눔의 집」의 감독 변영주는 「공개 시사회 및 간담회」(「나눔의 집 프로그램」, 1996, (주)판도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인 여성이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정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화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함께 공유해 주길 원하지, 결코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 주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 변호사 후쿠시마 미즈호는 과거의 아픔을 공유한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꼭 보라고 말 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필자 또한 영화를 보고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 얼마 전에도 지금 근무

7) 제프리 워스, 『섹슈얼리티』(河出書房新社, 1996).

하고 있는 대학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었다(『나눔의 집』은 현재 일본의 (주)펜도라사에 의해 비디오로 만들어져 상영권을 포함해 45000엔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다시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나 스스로도 “여성”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할머니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자각이다. 물론 작년 12월에 도쿄에서 열린 “여성 국제 전범 법정”(2000년 12월 8일-12일, 전시 하에 벌어지는 여성 폭력에 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관행을 깨기 위해 일본군 성노예제의 책임자를 소추한 민중 법정으로, 그 실재 상황은 비디오 『침묵의 역사를 깨고-여성 국제 전범 법정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다)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천황 히로히토의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는 일본군 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이나 역사에 항거하는 결론을 이끌어낸 법정관계자들을 대할 때에도 이와 똑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적 사죄 및 보상문제는 다시금 거론되겠지만, 이 문제는 특히 일본의 전후 처리 사안 중에서도 그 해결이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해결책 과도 연결되지 못하는 양사백일의 세안으로 인해 더욱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눔의 집』을 보거나 스크린을 통해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할머니들을 소개하면서 나 스스로가 분열되는 듯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지만, 필자는 앞으로도 “위안소” 혹은 “위안부”를 양산한 일본의 상상력을 일본의 문학 작품을 통해 도출해 내는 작업을 지속하고자 한다.

■ 필자 :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번역 : 박유하(세종대 일문과 교수)

Abstract

日本軍兵士のセクシュアリティをめぐる表象 ——田村泰次郎 富士正晴そして古山高麗雄——

金井 景子

日本の從軍經驗を持つ男性作家たちによる小説テキストの分析を通じて、戦時下での兵士による民間女性たちへの強姦、その常態化したシステム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考察する。その際に「キ??ワ?ドとなるのは「記憶」と「セクシュアリティ」、そして「娼婦と妻」である。

古山高麗雄の「セミの追憶」については、戦時下の皇軍兵士にとって環境のごとく眼差されていた日本軍慰安婦が、同時代を共有する「彼女」あるいは「彼女たち」として再認識された點が評價できる。しかし、日帝の殖民地であった韓国や臺灣をはじめとして、アジアのさまざまな國?から勇氣を振り絞って名乗り出られた元日本軍慰安婦の方?の證言集や著作を踏まえるとき、自身の體驗に照らして「信じられない」あるいは「信じられる」という判断にいたる、私小説の想像力の限界性を指摘せざるを得ない。

また、田村泰次郎の「蝗」は、戦時下で出會った日本軍慰安婦たちとの關係を正面に据え、自身の生と性の根幹に觸れる存在として作品化している。しかし、注目すべきは、兵士と慰安婦との戀愛物語という?組みを持ち?こんなだ——いわばロマン化の手法を導入したてんである。このことによ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をより多くのひとびとに届ける上で、物語として受け入れやすい形を提供したが、慰安婦が「戀人」として描かれることで、植民地支配下における女性の受難を構造的に炙り出すことから、遠くなった。

富士正晴の「童貞」は、前線における「戦時強姦」の際に、中國人女性と日本人女性を入れ替えて想像する日本人兵士が登場する。「産む性」として保護さ

れるべき自國の妻たちと「排泄する性」として消費される植民地下の「慰安婦」や討伐先で出くわす敵國女性たちが どちらも信用ならないものとして入れ替え可能な存在として認識されている。帝國主義の一つの顯現である帝國軍隊によって行われる戦時強姦が その極北で 彼女らを守るために命を賭しているというべき者たち(=自國の女たち)をも否定せざるを得ないのは 自國にいるときから刷り?まれた女性への不信感や 生きるために性勞?を行う女性たちを蔑視する發想が 根底にある。

日本帝國主義下の性暴力を扱った作品の分析は 日本人の女性研究者としての私にとって 自身の主體が引き裂かれること餘儀なくされる體驗であるが 「慰安所」あるいは「慰安婦」を生み出した日本の想像力について 今後も探究を續けていくつもりである。